

시연(施連) 칼럼

당쟁에 희생된 교남嶠南 삼사간三司諫 권적權迪 26世

문정공文靖公→개녕현감공開寧縣監公→사간공司諫公 적迪



권오신

좌윤공파종회장: 칼럼니스트

사간공司諫公(鉉諱 遵迪)은 어릴 적부터 효자로 이름이 났다.

성장을 해서는 리더십이 뛰어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 나하고 면주는 통찰력이 뛰어나 크게 성장이 될 그릇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남인(南人)이어서 나라에 능력만큼 쓰이지 못한 불운한 선대(先代)가 됐다.

자는 계경(啓卿), 호는 구곡(鳩谷)이신 사간공司諫公 적迪은 인조 4년(1626, 丙寅) 예천에서 문정공(文靖公, 휘諱 희정希正)의 넷째 아드님이신 현감공監公(개녕공開寧公, 휘 희자)의 10대손으로, 전사공(鉉諱 育若桺)의 8대손이자 진사 손(巽) 7대손이며 광서(光瑞)공의 6대 종손이 되고 선무랑(宣務郎 휘 희근汝勤)의 증손, 백룡(伯龍)공의 손자, 그리고 문장가이신 미운(美胤)공과 원주변씨(原州邊氏)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이다.

효종(孝宗) 5년(1654, 甲午) 29살 대과(大科)에 앞서 가진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에 2등으로 입격(入格), 그때부터 영남의 천재 문인이 됐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종 원년(1660, 庚子) 시문문과(式年文科)에서 급제(35명 중 18등)해서 어사화(御史花)를 썼다.

대과급제(大科及第)보다 문재(文才)가 더 알려져 다른 자리를 거치지 않고 사간원(司諫院, 조선 시대 때 임금에게 간하는 부처)司諫(사간원)의 종삼품 벼슬, 임금에게 직접 직간하는 자리)과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에 이르렀다.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과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로서 연일 현종(顯宗)에게 올린 올곧은 소리와 수려한 문장력의 상소문(上疏文)으로 이때부터 당시 조정은 목재(默齋) 흥여하(洪汝河), 김중휘(金重輝) 구곡(鳩谷)을 두고 교남(嶠南, 뾰족한 산이 많았던 영남을 달리 부르는 말) 삼간(三諫)으로 불리게 됐다. 당쟁이 극심했었던 조선(朝鮮) 후기, 당파를 초월한 이같은 칭송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다.

현종(懸鏡) 15년(1674) 1월엔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이 제수됐으나 곧 사임했었다.

교남삼간(嶠南三諫)이란 명성과는 달리 내직에서 밀려나 처음으로 부임한 곳이 충주목사(忠州牧使)였다. 사간공(司諫公)은 여기서도 얼마 버티지 못했다.

당쟁에서 밀린 사간공(司諫公, 南人)은 숙종 2년(1676) 암행어사(暗行御史)의 허위 소(所)로 물려났으나 곧 결백이 밝혀져 세 곳에서 목민관을 더 지냈다. 외적으로 나가서도 가는 고을마다 청백리(淸白吏)로, 또 임금의 마음을 살펴 백성을 사랑하는 분백리로 이름을 얻었다.

숙종(肅宗) 4년(1678) 1월에 벼슬에서 스스로 물려났으나 두 달 뒤에 사간(司諫)으로 다시 등용되고 5월 22일과 8월 30일, 11월 7일에 거듭 사간(司諫)이 제수된 걸 보면 숙종(肅宗) 임금은 교지를 내리고 사간공(司諫公)은 벼슬을 던졌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끝이다.

숙종(肅宗) 5년(1697) 1월 7일 집으로 제수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록이 끝이다.

남인(南人)으로 지목되어서 벼슬살이가 순탄치 않아 한적으로 돌았지만 학문적(學問的) 명성이 높아서 문신들이 불인 교남(嶠南: 영남을 달리 일컫는 지명)의 삼사간(三司諫)은 생을 놓을 때까지 늘 따라다녔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동향인(同鄉人)이자 문신이었던 목재(木齋) 흥여하(洪汝河)와 김중휘(金仲輝) 공도 같았다.

교남(嶠南) 삼인이었던 김중휘(金仲輝) 공이 이런 평가를 내린 글이 문집에 실려 있다. “구곡은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이 돋두하고 지휘 통솔력(統率力)과 과단성(果斷性)이 풍부하고 가지런하다.” 사화의 후유증이 있어서 남인(南人)들이 벼슬길을 포기하고 산림(山林)으로 숨어들 시기였으나 학문적(學問的)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벼슬길이 막히는 사례는 하다했었다.

사간(司諫) 구곡(鳩谷公)의 이같은 긴 행장과 사적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렸으며 2019년 봄 예천에 사는 후손 집에서 문집 여러 권이 발견됐다. 문집이 국역 되면 조선 후기 시대의 당쟁과 문장론과 시대상이 잘 나타나는 귀한 사료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숙종(肅宗) 15년(1689) 5월 22일 64살 때 생을 놓았다. 예천군 동쪽 간곡(澗谷) 산려 경좌(庚坐, 남서쪽을 등진 자리)에 썼다. 문신(文臣)이었던 고암(古巖) 김세락(金世洛, 1804~1873)이 행장(行狀)을, 성재(星齋) 권상의(權相弼)이 비문을 지었다.

인조(仁祖) 5년(1627)에 돌아가신 초배(初配) 숙부인(淑夫人) 풍기진씨(豐基秦氏, 부父 휘 희경 계공랑 功郎 菲軒必亨)는 예천 북쪽 제고곡諸古谷 대동臺洞 계좌(癸坐, 정북에서 동쪽으로 보는 자리)에, 인조(仁祖) 14년(1627)에 태어나서 숙종(肅宗) 27년(1701)에 돌아가신 재배(再配) 양양권씨(襄陽權氏, 부父 휘 희경 통덕랑 通德郎 穎克興)는 예천군 용문면 명정자(明亭子) 뒷산 선영 해좌(亥坐, 북서를 등지고 남동을 바라보는 방향)에 썼다.

인조(仁祖) 27년(1649)에 나서 숙종(肅宗) 13년(1687) 39살에 돌아가신 통덕랑공(通德郎公, 휘 희경命稿)과 효종(孝宗) 9년(1658)에 나서 경종(景宗) 4년(1724) 67살에 하세한 승지공(승지贈職) 좌승지(左承旨, 휘 희명고命祐)를 됐다.

승지공(承旨公)은 필법(筆法)이 정교했던 서예가(書藝家)로 명성을 얻었으며 구곡공(鳩谷公)의 넷째 손자(鉉諱 遵迪)가 영조(英祖) 때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귀히 돼 좌승지(左承旨)로 증직 됐다.

<자료출처 :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구곡공(鳩谷公)의 문집, 영기언행록永嘉言行錄, 안동권씨대동보安東權氏大同譜, 조선문화방목朝鮮文科榜目>

제사비요(祭祀備要)



성균관 전례사典禮師 능소能素 권정택 權貞澤

제사음식, 제수 진설

◎제수(祭羞) : 제수(祭需)

제수(祭羞)라 함은 제사에 차리는 음식물을 말한다. 제사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정성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정성의 표시는 물질로써 가능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 제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성찬을 차리기보다는 평상시 맹인(亡人)이 즐기는 음식 또는 가정에서 먹는 반상 음식으로 깨끗하게 차려 정성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번거로운 의식절차로 행하는 것만이 의례로 여겼던 옛날의 성현 말씀에도 ‘땀을 다한 것이 제사의 근본이라 할 수 있고 물질로만 다한 것은 가장 잘못된 제사이다’라고 하였다.

예문(禮文)에 ‘진기 심자(盡其心者) 제지본(祭之本), 진기물자(盡其物者) 제지말(祭之末)’이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제사의 근본이지 물질로만 때우려 드는 것은 잘못된 제사라고 하였다.

포(脯)는 주로 문어나 건어를 쓰고, 과실에는 밤, 대추, 배, 감, 은행 등을 쓰되 훌수여야 한다. 그리고 소채(燒菜)로는 두 가지의 익힌 나물과 한 가지의 김치를 쓴다.

어물로는 주로 조기를 쓰며 육물(肉物)엔 짐짐승의 고기를 쓰는 게 좋다.

적(炙)으로는 육(肉)과 간(肝)을 이용하는데, 진찬(進饌)이라고 하여 잔의 초한 때 올리고 육은 아한과 종헌 때에 올린다.

떡과 간장을 준비하고, 국은 유풀, 생선, 채소 등으로 한다. 옛날엔 탕(湯)을 어(魚), 육(肉), 소(蔬) 등으로 3탕을 올렸으나 요즘은 단탕(單湯)으로 위의 재료를 혼합하여 쓴다. 설 차례는 때 대신 떡국을, 추석 차례는 때 대신 송편을 올립니다.

제사에 쓰지 않는 음식은 복숭아, 꽁치, 삼치, 갈치, 고추, 마늘 등이며 식혜, 탕, 면 등은 반데기만 사용합니다.

밥(반찬) 제삿밥으로 신위의 수대로 주발식기에 수복이 담고 뚜껑을 덮는다. 예전에는 밥 외에도 국수를 올렸으나 오늘날에는 생략해도 무방하겠다.

국(羹羹) 제사 국이다. 신위의 수대로 대접 또는 주발을 담고 뚜껑을 덮는다. 재료는 쇠

고기와 무를 네모로 납작하게 썰어서 함께 끓인다. 고춧가루, 마늘, 파 등을 쓰지 않는다.

떡(면) 제사에 쓰는 떡은 현란한 색깔을 피하므로 팔고물을 쓸 때는 껌질을 벗겨 내어 가급적이면 흰 빛깔이 되게 한다. 보통은 백설기나 시루떡을 해서 사각의 접시에 보기 좋게 놓고 신위의 수와 관계없이 한 그릇만 올리기도 한다.

찌개(탕) 탕은 오늘날의 찌개라고 할 수 있다. 쇠고기, 생선, 닭고기 중 한 가지만을 택하여 조리한다. 양념에 파, 마늘, 고추 등을 쓰지 않는다. 예전에는 탕의 수를 1,3,5의 훌수로 하였고 탕의 재료로서 고기, 생선, 닭 등을 사용하였다. 3탕일 경우는 육탕, 어탕, 계탕을 준비하였는데 모두 건더기만 탕기에 담았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국물과 같이 올리는 예도 있으므로 편리한 대로 한다.

튀김 및 부침(煎) 기름에 튀기거나 부친 것으로 육전(肉煎)과 어전(魚煎) 두 종류를 준비한다. 옛날에는 적과 함께 계산하여 그릇 수를 훌수로 만들기 위해 전은 반드시 짜수로 만들었다. 전과 적을 합하여 훌수 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재료가 고기, 생선 등 천산(天產)이기 때문에 양수인 훌수에 맞춘 것이다. 육전은 쇠고기를 잘게 썰거나 다져서 둘째에 만들어 달걀을 묻혀 기름에 부친다. 어전은 생선을 저며 계란에 무치고 기름에 부친다.

구이(적炙) 적은 구이로서 제수 중 특별 식에 속한다. 옛날에는 육적(肉炙), 어적(魚炙), 계적(鷄炙)의 3적을 세 번의 술잔을 올릴 때 바꾸어 구워서 올렸으나 오늘날에는 한 가지만 준비하도록 하고 올리는 것도 처음 진찬 때 함께하고 잔을 올릴 때마다 따로 하자 않는다.

육적(肉炙)은 쇠고기를 2~3등분 하여 길게 썰어 소금구이하듯이 양념에 담그고 기름에 부친다. 그리고 소채(燒菜)로는 두 가지의 익힌 나물과 한 가지의 김치를 쓴다.

어물로는 주로 조기를 쓰며 육물(肉物)엔 짐짐승의 고기를 쓰는 게 좋다.

적(炙)으로는 육(肉)과 간(肝)을 이용하는데, 진찬(進饌)이라고 하여 잔의 초한 때 올리고 육은 아한과 종헌 때에 올린다.

계적(鷄炙)은 닭의 머리, 다리, 내장을 제거하고 구운 것으로 등이 위로 가게 하여 사각의 접시에 담는다.

적을 올릴 때는 적염(炙鹽)이라 하여 찌어 먹을 소금을 접시나 종지에 담아 한 그릇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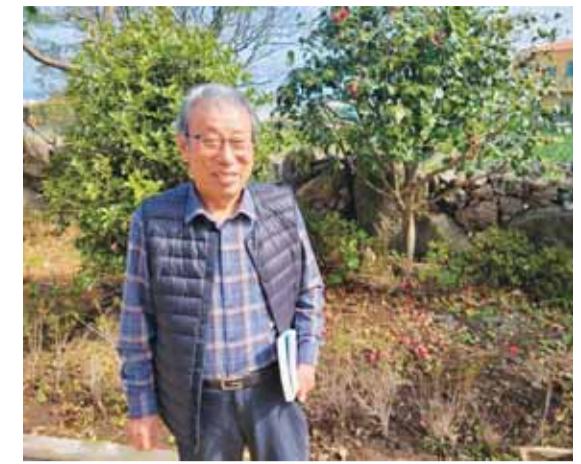
나물(숙채熟菜) 익은 채소이다. 한 접시에 고사리, 도라지나 무, 배추나물 등 3색 나물을 겹들여 담는다. 또는 각기 한 접시씩 담기도 한다. 주식 때는 배추, 박, 오이, 호박 등 푸른색 나물로 쓰는데 역시 마늘, 고추가 뿐 양념으로 쓰지 않는다.

김치(침체沈菜) 허게 담은 나박김치를 보시기에 담아서 쓴다. 고춧가루를 쓰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간장(청장淸醬) 맑은 간장을 한 종기에 담는다.

<다음호에 계속>

권무일 작가 서울대 졸업 후 80세에 전문대 재입학



제주도가 난리다. 올해로 꼭 80세(1942년생)인 권무일(權武一, 주밀공파, 37세) 작가가 “요즘 100세 인생이라는데 80세는 또 다른 시작”이라며 제주 한라대 관광일본어에 21학번 새내기로 입학했기 때문이다.

권 작가는 1960년대에 서울대 철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후 30여 년간 산업 역군으로 일하다 올해로 80세가 되면서 제주 한라대 관광일본어에 21학번 새내기로 입학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고대탐라사 집필에 매달”면서 사료가 부족해 늘 한계를 느끼던 차에 일본 옛 문헌을 살피게 되면서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망설임 없이 전문대 진학을 선택했다. “일본어를 공부해서 제주학 연구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싶어 일본어를 기초부터 배우기로 작정한 것이다.

권 작가는 “일본 서적을 읽을 만큼 실력이 향상될지도 의문이고 원하는 자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젊은이들과 청춘을 만끽하면서 일본어를 알고 이웃 나라 일본을 알게 되는 등 얻는 것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요즘은 “같은 과 학생들과 SNS로 소통한다. 새로운 경험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라며 “이런 경험은 돈을 주고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권 작가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뜨겁기만 하다. 고대 탐라사가 어떻게 집필될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멋진 인생 3막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봄! 서울 어느 아파트 8층
베란다에 편 군자(君子) '난'의 자태(姿態)

한쪽만 보는 편견이 문제다. 꽃은 한쪽만 피지 않는다. 봄이면 꽃은 어김없이 온전히 편다.

權紀 1100년의 역사책(通史) 발간 사업 안내

대종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권기 1100년의 역사책 발간 사업을 코로나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권옹렬 고문의 비용 전액 후원에 힘입어 발간하고자 합니다. 국가에 큰 공적을 세운 역사적 인물과 안동권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권문의 위상을 드높인 인물들의 사료를 모아 ‘權紀 千百年史’를 집필·발간합니다.

○ 안동권씨 100만 족친께서는 일체의 비용은 무료이오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직계조와 방계조의 위대한 업적과 공(功) 등이 벽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안동권씨 1100년 역사책에 수록·기록될 수 있도록 다같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각 파종회와 지역종친회에서는 각 파의 현조님과 지역인물들이 빠짐없이 수록·기록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15개 각 파종회에서는 5월말까지 편집위원 1명씩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기 : 안동권씨 득성(得姓) 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 집필대상

-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 3정승 6판서 등 문무관 9품 이상